

露西亞의 思想史上 헤겔主義의 存在 (七)

(-양코·야-넬說에 依하여-)

田元培

그리하여 바쿠닌의 변증법은 결코 構成的 方法도 아니었으며 또 漸進的으로 規定된 『세계적 에란』도 아니었다. 이 □□無規한 人間의 世界觀 속에는 漸進적으로 흘러가는 發展의 □□도 없었으며, 또 如何한 協□도 끼울 곳이 없었다. 그는 思과 無의 魔力에 依하여 神□을 自由의 形相으로 具現하는 새로운 世界國家를 實現하라는 前衛였다. 그리하여 辨證法은 바쿠닌에게 있어서 唯一한 目的이요, 同時에 世界史的 人間狀態를 達成시키는 唯一한 手段이었다. 그러나 바쿠닌의 所謂『世界史의 人間狀態』라는것은 無限한 時間課程에서 實現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에서는 時間이라든가 歷史라든가 하는 概念은 없었다. 그것은 다만 한 瞬間에 時間化하고 歷史化하는 것이었다. 辨證法은 모든 現存事物의 意味와 必然을 必然으로 否定하는 『魔術의 公式』이었다.

世界國家 卽 人類의 自由와 博愛의 世界는 이러한 否定을 通하여야만 實現하는 것이었다. 이 世界는 바쿠닌의 絶對였으며 永久正義의 永久愛를 土臺로 한 自己意識의 새로운 同盟이었다.

바쿠닌은 배린노커-와 카트코브와 가티 三十年代 乃至 四十年代의 露西亞 現實 아래 머리를 숙인 사람이었다. 바쿠닌은 처음부터 現實的인 것과 理性的인 것과의 同一性에 關한 헤-겔의 公式을 實踐한 사람이었다. 스타케비치의 同僚중에 바쿠닌가티 헤-겔의 公式을 全體적으로 正當하게 理解한 사람은 없었다. 헤-겔의 論理規定을 理解하기에 充分한 反省力을 가진 사람은 바쿠닌 한 사람 밖에 없었다. 바쿠닌은 헤-겔의 엔티크로페디 元典을 一八三〇年에 讀破하고 베린스키-가 思辨的 論理의 概念을 神과 存在, 地上的인 것과 天上的인 것의 同格으로 把握한 것을 反駁하였다. 바쿠닌은 언제든지 그의 友人들에게 向하여 이런 □□를 □告한 것이었다. 그러나 바쿠닌은 괴-테를 『全自然의 幻』 가운데에 본 同時에 現實的 世界를 自然□□로 □□하였다. 바쿠닌에 依하면 現實은 언제든지 □□갖는 神이 充滿한 世界였다. 卽 客觀精

神의 實現한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바쿠닌의 이 世界와 歡喜의 世界로서 □□하였다. 露西亞 헤-겔主義의 初期를 表現하는 이 浪漫主義는 一八三八年以來의 바쿠닌의 根本的 氣分이었으며 그 後 프라킨時代에도 그는 이러한 氣分에 싸여 있엇었다. 그는 먼 □□인 프러친에서 硯世 업시 헤-겔의 □書 □□讀하였다. 그가 헤-겔 精神現象學을 읽기 시작한 뒤로는 一介의 命題를 가지고 圓終日토록 □□하기도 하고 □□□□를 기도하고 또 한번 읽은 것을 三回 乃至 四回式이나 提督하였다 한다. 그는 이러한 □□을 가지고 『엔티크로페티』를 이리고 『論理學』에 沒頭하고 『宗教哲學構成』에 沈潛하였다 한다. 이 時代에 그는 그의 神이 아렉산드로 보나에게 보낸 書信 中에 『現實은 神의 意志』라는 意味를 記錄하였다. 그는 헤-겔의 中學校長 就任演說을 翻譯하여 當時 베린스키-가 編輯하고 잇은 一雜誌에 發表하고 그 뒤 一八三八年에는 거기 對하여 序文을 썼었다. 이것 바쿠닌의 現實 歡喜의 最初의 가장 鮮명한 表現이었다. 이 序文은 이 時代의 바쿠닌의 氣分을 明白히 表示한 點에서 뿐 아니라 莫斯科 헤-겔主義의 열쇠는 또 □□을 表現하는 點에서 重要的 歷史的 脈絡에 屬하는 것이다. 바쿠닌은 여기서 現實과의 利□을 無制限하고 信仰하였다. 現實은 詩의 象徵에 보여서의 또는 宗教的 法悅에 잇서서의 絶對精神의 啓示로서 讚歌되었다. 바쿠닌은 『具體的 生活의 眞理와 喜悅一에 對하여 또 『이 不可思議한 世界의 調和』에 對하여 말하였다. 生命 잇는 모든 것은 壯□한 것, 善인 것이었다. 이 世上에는 苦難이란 것은 업다. 왜 그러냐면 모든 苦難은 世界에 對한 矛盾을 表現하는 것이오 生命에 不滿을 갖는 것인 까닭이다. 그러다가 現實과의 和解의 理念을 樹立하는 것이 『時代의 課題』라고 바쿠닌은 斷定하였다. 『우리들 젊은 世代는 窮極에 잇서서 우리 이 壯□한 露西亞的 現實에 滿足할 것을 바라는 것이다』라고 바쿠닌은 말하였다.

우리는 바쿠닌의 이 말을 들을 때 無限自然에 對한 괴-테의 牧歌을 듣는 것 가튼 甞김을 갖는다. 이와 가티 바쿠닌은 世界을 모든 運命觀의 彼岸으로 보았다. 그는 運命을 미들 수가 업었다. 왜 그런고하니 運命은 언제든지 不合理한 것이오, 客觀的으로 所與된 世界에 矛盾되는 까닭이었다. 調和 잇는 것은 모다 神的이었고 幸運은 無運命이었으며 『잠자는 幼兒』였다. 그러나 이 아 가튼 生命의 □□에 陶醉하는 것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하였다. 바쿠닌의 全生命은 얼마 아니 가서 어두운 한 힘의 支配를 바뒀다. 이 힘은 自己의 運命의 悲劇的 不合理性이었다. 그는 理論 上에서는 이것을 아무리 絶對化하고 和解하라고 애썼스나 그래도 그는 이 運命을 脫脚할 수가 업엇든 것이다. 그는 正直한 運命人이었다. 그는 奇怪한 運命의 秘密에 사로잡힌 人間이었다.